

화보로 본 연구소의 10년



1982년 10월 8일에 정식으로 발족되어 본사 8층에 마련된 연구소(당시 시험소)설립 추진 본부.

협회의 두뇌들이 모여 연구소의 백년대계를 총체적으로 구상하였던 곳이다. 아마 이곳의 실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의 연구소를 이미 그리고 있었을게다.

1983년 10월 20일에 거행된 연구소의 기공식 행사에서 첫삽을 뜨는 장면.

이 기공식에는 이대용 이사장, 이상배 내무부 민방위본부장, 박상은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정동성 국회의원 등 관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연구소의 개소식 장면

1986년 4월 11일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의 3만1천3백20평 부지위에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라는 공식 명칭으로 재무부 및 내무부장관 등 관계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팡파레를 울렸다.

1987년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호텔방화대책세미나에서 矢筈野義郎(일본소방검정협회 이사)이 주제발표하는 모습.

前川喜寛(일본 건재시험센터 중앙 시험소장)의 발표도 있었던 이 세미나는 연구소 개소 후 1년 7개월 만에 추진된 것치고는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였다.



1989년 6월에 삼성물산(주) 방재관련 담당자에게 방재기술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장면.

이 교육이 방재기술실무교육의 효시가 됐으며, 그 후 4,000명이 넘는 방재관계자들이 동 교육을 수강하였다.

1993년 3월에 조규만 소장과 권오승 차장이 업무협약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독일 VdS를 방문한 후 VdS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연구소는 설립초창기부터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에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1994년 6월 27일에 영국로이드선급협회로부터 IM O기준에 의한 화재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정서를 전달받고 있는 장면.

그 후 연구소는 NK(일본해사협회), ABS(미국선급)으로부터도 동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타 외국선급에도 최근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994년 10월 29일, 소방설비, 건축재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증기관으로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FMRC와 상호기술협정을 체결하는 장면.

이 협정에서 양 기관은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기술연수협력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1994년 11월 9일, 협회 임원 및 연구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음향 및 건재환경시험동 준공식 행사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장면

연구소는 주로 화재 관련 업무만을 수행해오다 이 시험시설을 확보하여 건축환경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1995년 9월 28일, 연구소가 공업진흥청(KOLAS)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서를 전달받는 장면과 KOLAS 지정마크.

연구소는 이 지정을 국내 2700여개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18번째, 화재분야에선 첫 번째로 받으므로 그 시험검사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1995년 11월 14일부터 16일 까지 개최된 일본 건재시험센터와의 제5차 정기협의회 후 기념촬영 장면.

양 기관은 1991년에 상호기술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장소를 번갈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 3월 7일 연구소 강당에서 개최된 개소 10주년 기념 방재기술 세미나 장면.

미국 FMRC의 남순일 박사, 연구소의 권오승 차장, 협회 김광휴 부장이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신기술 및 적용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하였으며, 소방 및 건축설계 실무자 등 참석자가 150명이 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